

인 사 말 씀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 회원 여러분께.

양춘가절에 선생님의 건안을 경축하오며 불초 본인이 지난 3월 18일에 개최한 1994년도 정기총회에서 협의회 회장으로 선임되었기에 우선 서한으로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근로자들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힘써오신 회원기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는 1987년 4월에 설립되었습니다. 발족 당시에는 일부 건강진단기관들의 부실검진과 수가의 덤핑행위 등으로 건강진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었으며 노·사로부터의 신뢰도 크게 얻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협의회 운영도 설립초기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적극적 지원과 아울러 회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건강진단의 사회적 인식도 점차 새로워지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동안 협의회를 이끌어 오던 조규상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께서는 협의회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하에 임기 2년을 남기고 사퇴하심에 따라 부회장직을 맡고 있던 본인이 협의회의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건강진단의 목표는

근로자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강구하며

건강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발견하여 필요한 예방대책을 기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본인은 1960년대부터 근로자 건강진단에 참여하여 왔을 뿐 아니라 협의회 설립초부터 관여하여 왔으며, 또한 여러분들과 같은 회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근로자건강진단사업의 과거와 오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진단의 질을 한단계 끌어올리는데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회원기관여러분,

건강진단의 목표는 근로자들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강구하며 건강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발견하여 필요한 예방대책을 기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데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건강진단의 내실화를 위해 94년도에는 정도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검진업무 수행상태도 수시 점검토록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끝으로 회원기관 여러분들께서 신뢰받는 건강진단기관으로서의 자율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며 협의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배전의 협조를 바라면서 취임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 3월

일 반 건 강 진 단 기 관 협 의 회

회장 정봉석
을림